

최경주 36위

PGA 셀류스턴 첫날 1언더파...애플비 선두

귀국을 앞둔 '탱크' 최경주(36·나 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셀류스턴오픈 첫날 중위권에 머물렀다.

최경주는 2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 험블 레드스톤골프장 토너먼트코스(파72·7천457야드)에서 열린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1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쳐 공동 36위에 올랐다.

아이언샷 그린 적중률 78%의 정확한 샷을 과시한 최경주는 홀마다 거의 2개홀에 이르는 퍼팅 부진 때문에 타수를 더 줄이지 못했다.

선두는 6언더파 66타를 때린 '개막전의 사나이' 스튜어트 애플비(호주)가 꿰찼다.

제리 스미스, D.A 포인츠(이상 미국·67타)를 1타차로 제친 애플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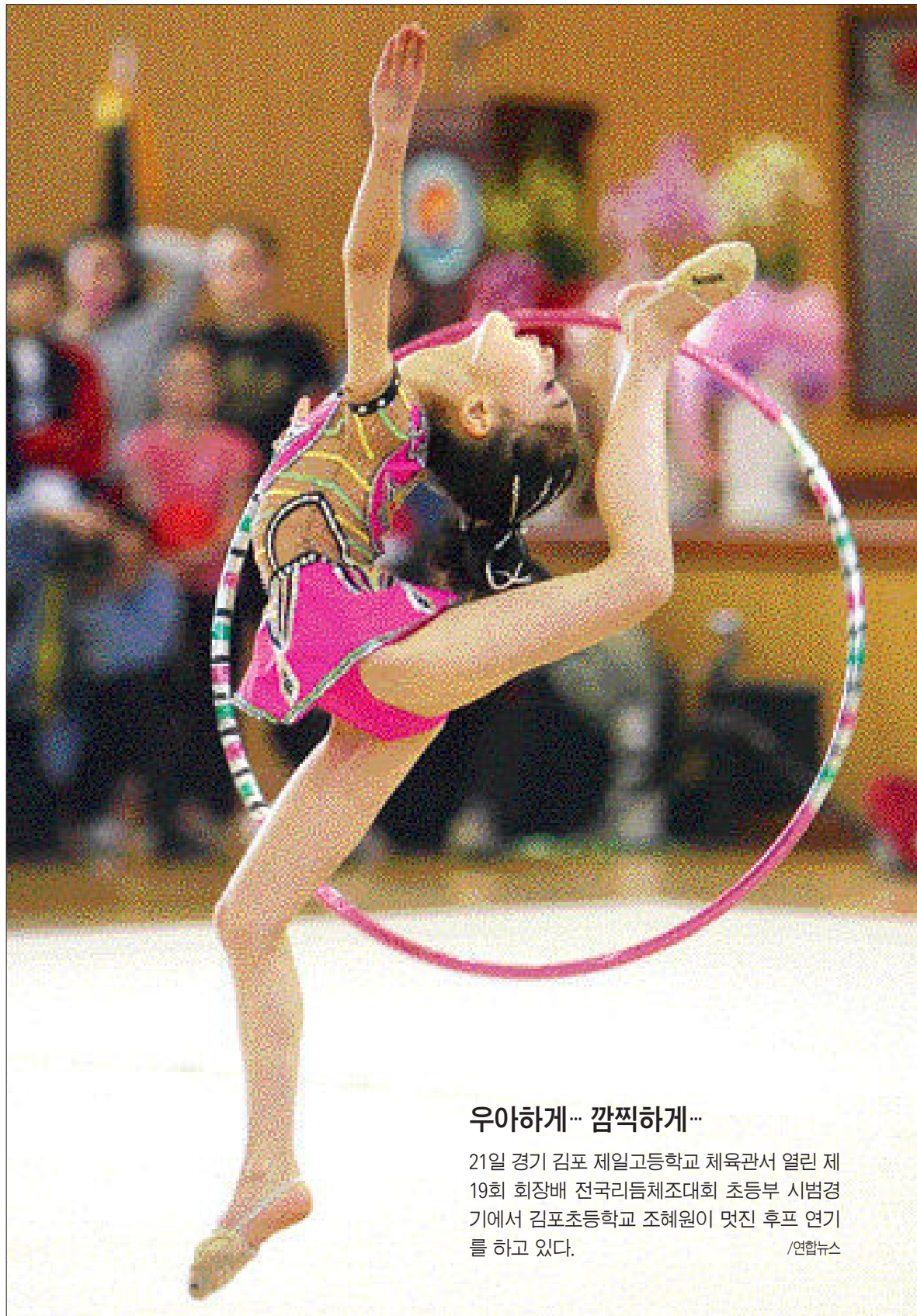
2003년 라스베이거스인비테이셔널 이후 3년만에 '보통 대회' 우승을 바라보게 됐다.

애플비는 2004년부터 지난 해까지는 전년도 우승자만 출전하는 시즌 개막전 메르세데스벤츠퍼인십에서만 우승했을 뿐 다른 대회 우승이 없다.

비제이 싱(피지)은 3언더파 69타로 공동 9위에 올라 우승후보답게 1라운드 성적을 냈지만 코스 설계자문을 맡아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데이비드 톰스(미국)는 1언더파 71타로 최경주와 함께 중위권에 그쳤다.

나상욱(22·코오롱)은 4번홀(파5)에서 8타만에 홀아웃하는 등 부진 끝에 5오버파 77타로 하위권으로 밀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우아하게... 짹짹하게...

21일 경기 김포 제일고등학교 체육관서 열린 제19회 회장배 전국리듬체조대회 초등부 시범경기에서 김포초등학교 조혜원이 멋진 후프 연기를 하고 있다.

/연황뉴스

WBC 태극전사 포상금 3,000만원씩



선수단 8,100만원 각출

유소년 구장 기금 전달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의 위업을 이룬 태극전사들에게 포상금 3천만원씩이 지급된다.

한국야구위원회는 WBC에 한국 대표로 출전했던 선수 31명에게 3천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사령탑이던 김인식 한화 감독은 5천만원을 받는다. 코치

로 활약했던 김재박(타격 및 벤치) 현대 감독, 선동열(투수) 삼성 감독, 조범현(배터리) SK 감독은 4천500만원씩을 받고, 유지현(1루 주루) LG 코치와 류중일(3루 주루) 삼성 코치에게는 4천만원씩 돌아간다.

김인식 감독과 이종범(기아)은 24일 오전 9시 30분 선수단을 대표해 야구회관을 방문,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의 포상금에서 각 출한 8천100만원을 유소년 야구장 건립기금으로 신상우 KBO 총재에게 전달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동국 대타' 안정환이나 조재진이나

“골 넣어야 뽑힌다”

오늘 나란히 출격

독일 월드컵축구 출전이 불가능해진 이동국(포항 스틸러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안정환(30·MSV 뒤스부르크), 조재진(25·시미즈 S펄스)이 22일(이하 한국시간) 나란히 출격한다.

안정환은 밤10시30분 2005-2006 독일 분데스리가 31차전 FC쾰른과 원정경기를 앞두고 있고 조재진은 이보다 앞선 오후 7시 일본 프로축구 J리그 9차전 우라와와 홈경기에 나선다.

현재는 안정환이 아드보카트호에서 이동국이 빠진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소

속 팀 주전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걸리는 하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뛰 경험을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정환으로서는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 주는가가 속제다.

이에 반해 조재진은 큰 경기 경험은 적지만 일본 무대에서 맹활약을 보이고 있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

조재진은 J리그 개막전부터 득점 포를 폭발시키더니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며 펄펄 날았고 지난 9일 오이타와 리그 7차전에서는 2골을 몰아치며 팀의 해결사로 우뚝 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태극 남자들도 부진

이미나·김영·이지영 등 공동 13위

LPGA 내추럴채리티 첫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 남자군의 시즌 세번째 우승컵 사냥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21일(한국시간) 조지아주 스톡브릿지의 이글스탠딩골프장(파72·6천394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플로리다 내추럴채리티 챔피언십 첫날 순위표 상단에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점령했다.

통산 6승을 올렸고 작년 상금랭킹 3위를 차지한 크리스티 커(미국)가 7언더파 65타를 뽑아내 마리아 요르트(스웨덴)와 함께 공동선두에 자리를 잡았고 '골프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은 6언더파 66타를 때려 공동 3위에 올랐다.

시즌 첫 메이저대회 크래프트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부활의 나라를 활짝 편 카리 웹(호주)과 대회마다 우승

경쟁에서 빠지지 않는 나탈리 걸비스(미국), 백전노장 줄리 잉스터(미국) 등도 5언더파 67타를 쳐 공동 6위에 포진했다.

필즈오픈 우승자 이미나(25·KTF)와 김영(27·신세계), 임성아(22·농협한삼인), 이지영(21·하이마트) 등이 4언더파 68타로 공동 13위에 올라 출발은 무난했지만 선두그룹의 이빨값으로 볼 때 힘겨운 추격전을 펼쳐야 할 처지다.

3언더파 69타를 친 장정(26·기업은행)과 이정연(27), 양영아(28), 유선영(20) 등이 공동 24위로 뒤를 받치고 있어 한국은 '별따작전'으로 시즌 3승 사냥에 나서는 형국.

김미현(29·KTF), 한희원(28·월라코리아) 등 경험이 풍부한 고참들과 상승세의 안시현(22)이 2언더파 70타로 상위권 도약의 디딤돌을 놓은 것도 눈에 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골프유학 떠난 송원여중 오지수 뉴질랜드 아마골프 선수권 우승

박희영(17)에 이어 '남반구 골프 꿈나무'가 또 한명 탄생했다. 지난해 뉴질랜드로 골프 유학을 떠난 광주 송원여중(2) 오지수(14)는 지난 19일 뉴질랜드 웰링

턴 웨스타운골프장에서 열린 뉴질랜드 21세 이하 여자아마추어골프 선수권대회를 제패, 대회 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다. 36홀 스트로크플레이로 16명을

뺀 16강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리는 이 대회는 뉴질랜드 뿐 아니라 호주 국가대표가 모두 출전했다.

오지수는 준결승에서 '제2의 카리 웹'이라고 불리는 호주 아마추어랭킹 1위 크리스티 스미스를 꺾은 데 이어 결승에 만난 호주 국가대표 에보니 허드를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

독일보청기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1544-1731

공무원 직방인 신용(정보)대출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1544-1731

지붕·옥상슬리브 우레탄결 망수전문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362-0606

방수 advertisement for waterproofing services with contact info: 361-8111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361-8111